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

1. 선한목자 되신 우리주 항상인도하시고 푸른풀밭좋은 곳에서 우리먹여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인도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인도주소서
2. 양의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영접하시고 길잃은양의 무리를 항상인도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기도들어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기도들어주소서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목자 구세주여 지금나아갑시다 선한목자 구세주여 지금나아갑시다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인도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인도주소서 -아멘-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찬송가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선날 되세요

설명절 가정예배

2026

설 가정에배 순서

2026년 2월 17일 (화)

인도 : 신앙가장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 상 시편 23:1~3 다 같 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다 같 이

예배기도 가족 중 말은이

성경말씀 시편 78:52~55 (구p 860) 인 도 자

52.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53.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54.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설 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말 은 이

공동기도 다 같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설 명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새해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부모님들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봄에 새싹이 피어오르듯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충명을 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새롭게 다가온 병오년 새해에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길에 힘입어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52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은 세밀하게 우리 삶에 임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부어 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발은 부르츠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53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딤후 1:7)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원수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다에 빠져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상황들을 잘 이기어 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맞는 기업을 주십니다(54-55절).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 땅을 분배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맡는 삶의 거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의 기업으로 찾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가정 충만하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여 채워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주인의 자리로 다시 모시어 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